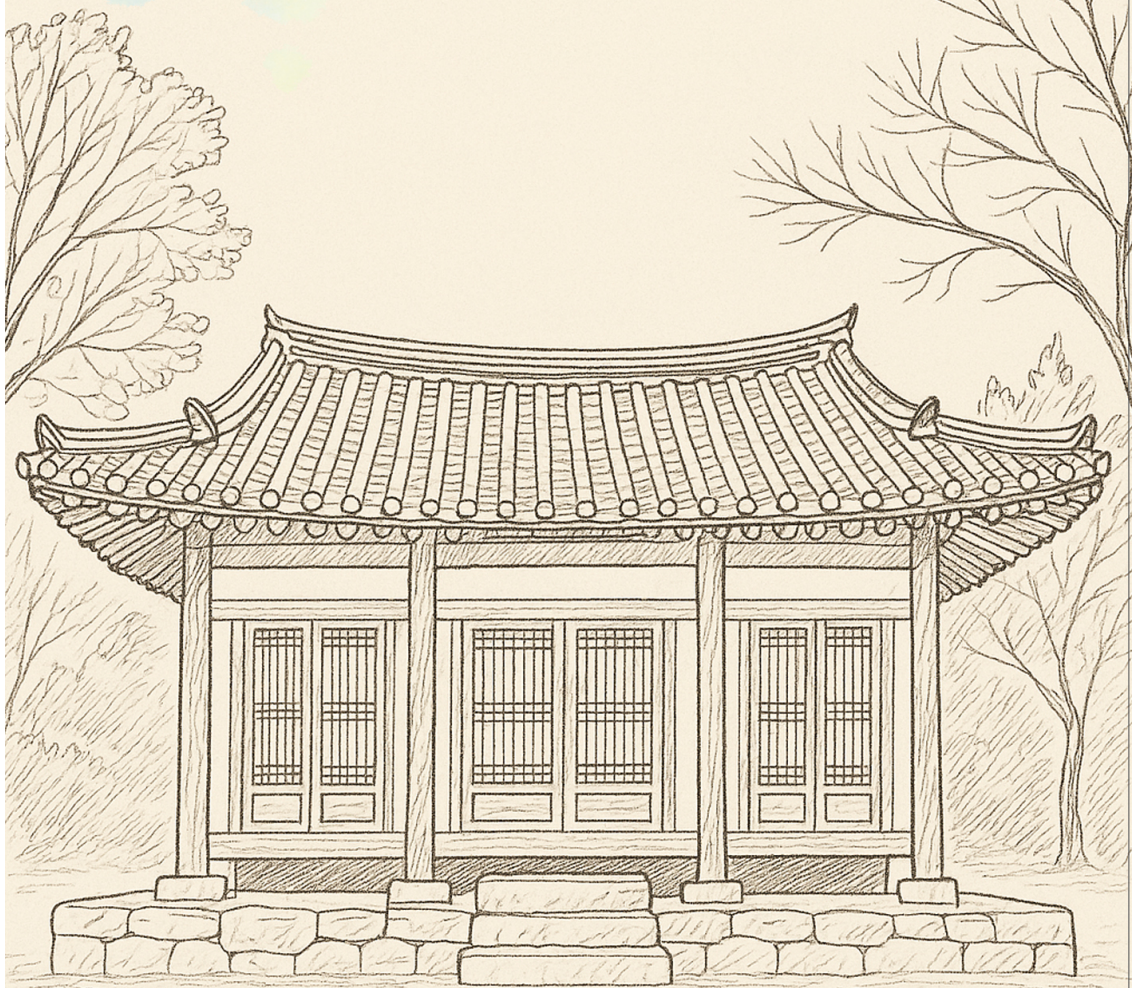


서부권
나주시

나주시 서부권

누정과 정사



(재)나주시천연염색문화재단
한국천연염색박물관





칠두정(七頭亭)

① 나주시 다시면 운봉리 288
전주이씨 도사(都事) 이지완(李止完 1569~1632)이 1624년 이후 창건

이괄의 난이 일어나자 도사 이지완(都事 李止完, 1569~1632)이 오이건(吳以健) 임위(林瑋) 등과 함께 의병으로 나섰다가, 1624년 난이 평정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고향으로 돌아와 세운 정자라고 한다.

1926년 퇴락한 정자 건물을 문중 차원에서 중건하였다.

칠두정 정면에는 솟을대문이 있고, 담장이 ㄷ자로 정자를 두르고 있다. 정자 규모는 정면 3칸, 측면 3칸으로, 가운데 칸에 방을 들였다. 정자 8개의 기둥에는 주련이 걸려 있다.

현재 1926년 이유관(李儒寬)이 쓴 <칠두정중건기(七斗亭重建記)>와 1928년 현와 고광선(弦窩 高光善, 1855~1934)의 <칠두정중건기(七斗亭重建記)>만 전해진다. 이외의 시문 편액들은 모두 화재로 소실되었다고 한다.





석관정(石串亭)

② 나주시 다시면 동당리 864-11
전주이씨 석관(石串) 이진충(李盡忠)이 1530년 창건

신령현감(新寧縣監) 석관 이진충(石串 李盡忠)이 퇴임하고 낙향하여, 1530년 자신의 호를 따 지은 정자이다.

석관정은 영산강과 고막강이 만나는 삼각지점 바위산 중턱에 위치한다. 영산강 8경 중 제3경인 석관귀범(石串歸帆)에 해당하는 곳으로, 석관정에도 '영산강제일경(榮山江第一景)'과 '나주제일정(羅州第一亭)'이라는 편액이 걸려 있다. 석관정 내부에는 여력재 장헌주(餘力齋 張憲周, 1777~1867), 남파 이택헌(南坡 李鐸憲, 1842~1914) 등의 편액이 걸려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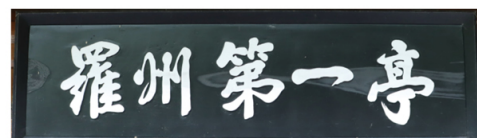
건물 규모는 정면 2칸, 측면 2칸으로, 지붕은 겹처마의 팔작지붕이다.



【석관정나루 앞 석관귀범 비석】



【석관정 현판 - 영산강제일경】



【석관정 현판 - 나주제일경】



장춘정(藏春亭)



나주시 다시면 죽산리 969

고흥류씨 장춘(藏春) 류충정(柳忠貞 1509~1574)이 1561년 창건

장춘 류충정(藏春 柳忠貞, 1509~1574)이 낙향하여 1561년에 지은 정자로, “내 정자에 들어오는 자들은 항상 봄기운이 있는 듯하다.”고 하여 장춘정(藏春亭)이라 이름 붙였다고 한다.

류충정은 무과에 급제하여 부안현감, 강진현감, 김해부사, 장흥부사, 온성부사 등의 수령을 지냈다. 낙향 후에는 면앙정 송순(俛仰亭 宋純), 전라도관찰사 안위(安瑋), 풍암 임복(風巖 林復), 사암 박순(思菴 朴淳), 고봉 기대승(高峯 奇大升), 석천 임억령(石川 林億齡) 등과 교유하였고, 장춘정에 그들의 시문(詩文)이 전해지고 있다.

【장춘류공유허비】



【장춘정유래비】





보산정사(寶山精舍)

4 나주시 다시면 영동리 663
보산팔현(寶山八賢)이라 불린 8인 문관들이 1575년 창건

1575년 '보산팔현(寶山八賢)' 또는 '초동팔문관(草洞八文官)'이라 불린 8인의 문관들이 세운 정자이다. 이들은 이곳에서 학문을 연마하고, 후진을 양성하며, 향약(鄉約)을 실시하였다.

입구의 외삼문을 지나면, 정면에 강당 형식의 보산정사가 세워져 있다. 그 좌우에는 동재(東齋)와 서재(西齋)가 있다. 사당(祠堂)인 보산사(寶山祠)보다 크고 오래되어 그 예가 희귀하다.

1789년 보산정사의 좌측 뒤편에 보산팔현을 기리기 위한 보산사(寶山祠)가 세워졌다. 건물 규모는 정면 3칸, 측면 1칸으로, 지붕은 겹처마의 맞배지붕이다..





남사정(南莎亭)



나주시 다시면 영동리 829-1

함평이씨 남사(南莎) 이계선(李啓善 1878~1940)이 1938년 창건

함평이씨 남사 이계선(南莎 李啓善, 1878~1940)이 1938년에 지은 정자로, 남사(南莎)는 '사동(莎洞) 남쪽에 있는 정자'라는 뜻이라고 한다. 편액은 구한말 명필인 윤용구(尹用求, 1853~1939)가 썼다.

남사정 건립 목적에 관해서는 “오로지 여러 종친과 함께 이곳을 중심으로 옛날 선조들의 유업을 강론하고 또 여러 자손을 이곳에 모아 옛날 성현의 글을 가르치며 나의 여생을 보내려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며 남사 이계선이 직접 <남사정실기(南莎亭實記)>를 통해 밝혔다. 건물 규모는 정면 5칸, 측면 3칸으로, 지붕은 겹처마의 팔작지붕이다.





남파정(南坡亭)



나주시 다시면 영동리 815

전주이씨 남파(南坡) 이택헌(李鐸憲 1842~1914)이 1938년 창건

이택헌(李鐸憲, 1842~1914)이 1885년에 지은 정자로, 금사정 남쪽 조그마한 언덕 위에 있어 남파(南坡)라고 이름 붙였다고 한다.

금사정(錦沙亭)은 이택헌의 5대조인 금사 이철응(錦莎 李喆膺, 1706~1778)이 일찍이 남파정 자리 인근에 지은 정자이다. 해사공 이돈면(海叅公 李敦冕, 1819~1872)이 오랜 세월로 퇴락한 정자를 1853년에 중수한 뒤, 모임과 강학 장소로 사용하였으나 공간이 협소해지자 금사정 남쪽에 남파정을 세우게 된 것이다.

남파정의 규모는 정면 3칸, 측면 3칸으로, 건물은 중앙재실형으로 지어졌다. 지붕은 흙처마의 팔작지붕이다.





야우정(野憂亭)

7 나주시 다시면 문동리 산 108
안동장씨 야우(野憂) 장이길(張以吉 1529~1595)이 1595년 창건

야우 장이길(野憂 張以吉, 1529~1595)이 이조참판 겸 오위도총관에서 물러나 낙향하여 1595년 자신의 호를 따 지은 정자이다. 야우(野憂)라는 이름은 휘약 범문정(輝岳 漢文程)의 『악양루기(岳陽樓記)』 중 “천하 사람들이 근심하기에 앞서 근심하고, 천하 사람들이 즐긴 다음에 즐긴다.”고 한 것을 축약한 것으로 여겨진다.

장이길은 보산정사(寶山精舍)를 중심으로 활동한 보산팔현(寶山八賢) 중 한 사람으로, 성리학자인 고봉 기대승(高峯 奇大升)을 비롯하여 오음 윤두수(梧陰 尹斗壽), 망암 변이중(望庵 邊以中) 등과 교류하였다. 임진왜란 때는 의병장 건재 김천일(健齋 金千鎰)을 도와 나주임씨 습정 임환(習靜 林權)과 함께 의병을 모집하고 의주까지 선조를 호가(扈駕)했다.

1984년 11대손 장희찬(張熙贊)과 13대손 장원석(張原碩)이 오랜 세월로 퇴락한 야우정을 시멘트 골조 팔각정으로 중건하였다.





창주정(滄洲亭)



나주시 다시면 신석리 산 30

나주정씨 창주(滄州) 정상(鄭詳 1533~1609)이 16세기 말경 창건

창주 정상(滄洲 鄭詳, 1533~1609)이 자신의 호를 따 16세기 말경에 세운 것이라 한다. 건립 후 한 차례의 중건이 있었다고 하나, 정확한 연대는 알 수 없다. 1950년 한국 전쟁으로 소실되자, 1953년 후손들에 의해 재건되었다. 창주정에는 창주가 직접 쓴 두 편의 시와 그의 후손이 쓴 두 편의 시 그리고 보산팔현(寶山八賢)의 칭송시가 걸려 있다.

정상은 문장으로 이름이 높았고, 1574년 문과에 급제하여 형조정랑에 이르렀다.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이순신 장군 휘하에서 종사하다 한산도 전투에서 병을 얻어 귀가했다. 이후 아들 정여린(鄭如麟, 1564~1640)을 통해 이순신 장군 군진에 군량미를 보내기도 하였다. 1953년 설재서원(雪齋書院)에 아들과 함께 추가로 배향되었다.

창주정은 영산강 가 언덕 위에 자리 잡고 있다. 현재 창주정 앞으로 펼쳐진 농경지는 조선시대까지만 해도 넓은 강이었다. 과거 석봉마을 어귀에는 세곡 창고가 있었으며, 당시 배를 매던 돌도 찾아볼 수 있다.

정자 규모는 정면 3칸, 측면 2칸으로, 지붕은 겹처마의 팔작지붕이다.





소요정(逍遙亭)



나주시 다시면 죽산리 323

전주 이씨 소요(逍遙) 이종인(李宗仁 1458~1533)이 1529년 창건

소요 이종인(逍遙 李宗仁, 1458~1533)이 낙향하여, 1529년 자신의 호를 따 지은 정자이다. 이종인은 전라우수사, 함경도북병사, 전라좌수사, 병조참판 등을 지낸 인물로, 낙향하여 죽지로 돌아와 이 정자에서 기거하며 여생을 보냈다.

정자 규모는 정면 5칸, 측면 3칸으로, 팔작지붕에 겹처마로 지어졌다. 여러 차례 중수를 거듭하다가 1865년 중건되어 현재에 이른다. 정자 내부에는 놀재 박상(訥齋 朴祥), 석천 임억령(石川 林億齡), 고봉 기대승(高峯 奇大升), 백호 임제(白湖 林悌) 등이 쓴 편액과 노사 기정진(蘆沙 奇正鎭)이 쓴 <소요정 중수기(逍遙亭重修記)>가 걸려 있다.

정자 뒤쪽에는 계축옥사(癸丑獄事)로 파직되었다가 이후 형조판서로 추증된 이지효(李志孝)를 모신 충렬각(忠烈閣)이 있다.





기오정(寄傲亭)



나주시 다시면 회진리 74-1

반남박씨 박세해(朴世楷, 1615-1698)가 1669년 창건

박세해(朴世楷, 1615-1698)가 회진에 정착하며 1669년 지은 정자로, 중국 도연명(陶淵明, 365~427)의 <귀거래사(歸去來辭)> 속 “의남창이기로(倚南窓以寄傲)”라는 글귀에서 따와 기오정이라 하였다. 이는 “어지러운 속세를 벗어나 강호의 맑은 경치를 구경하며 취미를 즐긴다”는 뜻을 담고 있다. 기오정 현판은 원교 이광사(員嶠 李匡師, 1705~1777)가 썼다고 한다.

기오정 내부에는 13개의 편액이 걸려있는데, 그중 9개는 1693년 박세해 부부의 회혼연(回婚宴)에 관련된 것이다. 이즈음 반남박씨 집안에 과거급제와 같은 경사들이 겹치면서 중뢰연(重牢宴)을 개최하였고, 서계 박세당(西溪 朴世堂), 남계 박세채(南溪 朴世采), 약재 류상운(約齋 柳尙運), 명곡 최석정(明谷 崔錫鼎), 창계 임영(滄溪 林泳), 한포재 이건명(寒圃齋 李健命) 등이 축하시를 지었다.

정자 규모는 정면 4칸, 측면 3칸으로, 정면 기준 왼쪽 2칸은 마루로, 오른쪽 2칸은 방과 뒷마루로 구성하였다. 지붕은 겹처마의 팔작지붕이다.





영모정(永慕亭)



나주시 다시면 회진리 90

나주임씨 귀래정(歸來亭) 임봉(林鵬, 1486~1553) 1520년 창건

1520년 귀래정 임봉(歸來亭 林鵬, 1486~1553)이 지은 정자로, 처음에는 자신의 호를 딴 귀래당(歸來堂)으로 이름 붙였다. 이후 1556년 그의 아들 풍암 임복(楓巖 林復, 1521~1576)이 돌아가신 아버지를 추모하기 위해 정자를 재건하면서, '영모정(永慕亭)'으로 이름을 바꾸었다.

임봉은 1519년 정암 조광조(靜庵 趙光祖, 1482~1519)의 석방을 요구하는 성균관 태학생 240여 명의 소두(疏頭)로 나아가 기묘명현(己卯名賢)으로 일컬어진다. 상소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나주 출신 선비 10명과 함께 낙향하여 금강11인계(錦江十一人契)를 결사했다.

임봉의 손자들은 선공감(繕工監) 임개(林愷), 명문장가(名文章家) 백호 임제(白湖 林悌), 강계부사(江界府使) 해은 임순(海隱 林恂), 의병장 습장 임환(習靜 林權), 처사 창랑정 임탁(滄浪亭 林宅), 황해도 관찰사 석촌 임서(石村 林愷) 등 17명이 있다.

영모정은 영산강 가 풍호(楓湖) 언덕 위에 자리 잡고 있다. 정자 규모는 정면 3칸, 측면 2칸으로, 정면 기준 왼쪽 1칸은 운동방, 오른쪽 2칸은 마루로 구성되어 있다. 지붕은 겹처마의 팔작지붕이다.

영모정 주위에는 <호남제일명한 회진비>, <귀래정 나주임공봉 유허비>, <문헌공 임공수 추모비>, <항일 회진개혁청년회 기념비>, 백호 임제의 <물곡비>와 <백호 임제선생 기념비>가 있으며, 인근 임제 등 5형제의 생가터에 건립된 백호문화관과 자효당기념관도 볼 수 있다.

